

SKC(주)
코오롱과 전자소재 합작 설립
 자체품용 PI 필름 생산

SKC(주)(대표이사 박장석)와 코오롱이 연성 회로기판(FPCB) 소재인 폴리이미드(PI) 필름 사업부를 각각 분사해 전자소재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양사는 올해 초부터 PI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해 왔으며, 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결의한 뒤 합작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작 형태는 현물출자 방식이며, 양사는 50%씩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SKC는 SK(주)가 42.5% 지분으로 대주주이며, 최신훈 SKC 회장 지분은 2.81%에 불과하다.

PI 필름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LCD·PDP TV 등에 들어가는 FPCB 핵심 부품으로 쓰이며 자동차, 전자 등으로 활용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PI 필름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일본의 도레이두폰이 전체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PI 필름 시장은 연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SKC와 코오롱만이 생산하고 있다.

SKC는 2005년 전자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선언하며 충북 진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코오롱도 같은 해 PI 필름 양산에 성공한 뒤 구미 공장에 설비를 구축했다. 양사 모두 연 생산 규모는 3백톤 가량이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
해외전문가 초청 코팅세미나 개최
 Die Coating 시 고려할 트러블 대응책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가 다음 달 20일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룸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코팅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 등 폭넓은 컨설팅(Die, Microgravure, Bar Coating 등 코팅분야와 조액·송액·탈포·세정 등 주변기술)을 하고 있는 金子 所長을 초청 코팅 및 주변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27일 일본의 “技術情報協會”에서 주최했던 “Die Coating에 있어서의 코팅 최적 설계·트러블 대책” 중 “Die Coating에서 고려하여야 할 트러블·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 및 올해 4월 16일(Osaka), 4월 22일(Tokyo) 加工技術研究會 주최로 개최된 “코팅액의 조정·송액기술의 기본 및 현장의 과제”로 강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밀코팅 기술을 전자재료 및 광학필름 분야에 응용전개하는 경우, 기술적인 포인트나 개발·실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코팅줄, Seeds, 거품, 오염, 막두께 분포 등)과 이들의 대응책에 대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e Coating 기술의 실용화시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30만원이며 접수마감은 6월 13일까

지이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한국포장기술연구소(전화 02)2026-8166)로 하면 된다.

여주군
'탐스레' 여주복숭아 브랜드 개발
브랜드파워로 대외경쟁력 강화

여주군(군수 이기수)은 지난 1월부터 '탐스레 여주복숭아'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지난 달 18일 상표출원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탐스레 여주복숭아'는 지난 1월 복숭아 재배농가와 공무원으로 부터 공모를 받아, 응모된 38개 이름 중 5개(안)을 가지고 가락동 청과시장 외 2개소에서 3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결정됐다.

'탐스레 여주복숭아'의 의미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해 맛과 향이 풍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은 전통적인 목판화 느낌의 서체와 파스텔 색상의 조합으로 친숙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한, 복숭아의 주 구매 타깃인 40대 여성 주부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컨셉으로 개발됐다.

여주군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계기로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여주복숭아의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타 작목과의 공동브랜드 사용 등 원예특작분야 육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에는 점동, 가남면 등지에서 1백

80여 농가가, 1백20ha규모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브랜드 개발이 여주 복숭아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정책목표 및 과제 제시

환경부(장관 이만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한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와 변화된 재활용여건을 분석한 후,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03~'07년)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01년 43%에서 '05년 56.3%로 증가하여 기본계획의 목표('07년: 48.7%)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01년 75.8%에서 '05년 83.6%로 증가하여 기본계획의 목표('07년: 78%)를 달성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역점과제로서 '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하여 지난 4년간 총 4백6십9만톤의 폐자원을 수거·재활용하였으며, 1.7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금번 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변화된 정책여건 및 전망을 반영하여 '12년까지 달성하고